

Jacob Kalmakoff

Weather Balloon Diplo- macy

W
e
a
t
h
e
r

P

t

r

Translation by Juhwam Pyun

S
c
a
p
e
g
o
a
t
8

C

O

e

j

Take a trip thirty kilometres north of the city of Seoul and you will find yourself in Paju, a town that sat on the border of the centrifuge of the Korean War—the longest war in Korea’s recent history. Today, Paju is a suburb of Seoul known for an artist village and a book publication area, as well as for being a tactical vantage point used by Southern forces during the war. Since the armistice in 1953, rather than exchanges of fire in this contentious area, a war of propaganda by way of weather balloons has been fought on the wind currents above the Korean peninsula.

서울에서 북쪽으로 30km 올라가면 파주가 있다. 이는 현대인들의 기억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인 한국 전쟁의 흔적으로 갈린 경계에 위치한다. 파주는 예술가의 보금자리이자 많은 출판사들이 위치하는 마을로, 과거 한국 전쟁시에는 남한의 주요 전술지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총과 무기로 전쟁이 이어졌다. 1953년 휴전 이후로도 이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기 대신 풍선이 사용된다는 것. 바로 선전물의 전쟁이다. 선전물 풍선들이 기류를 따라 돌며 한반도 위에서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Sever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self-identifying as humanitarian groups carry out weather balloons launches on a regular basis. Cylindrical-shaped mylar balloons coated with colourful Korean script profess slogans aimed at dismantling the North Korean regime’s hold on the conscience of its citizens. Tied to the base of these balloons are bundles of various propagandistic materials. This is the story of those materials, and the intentions behind them.

자신들을 “인도주의적 조직”이라고 지칭하는 남한의 여러 조직들이 풍선들을 정기적으로 띄워보내고있다. 실린더 모양의 마일라 풍선 위에는 북한 주민들들의 사상을 자극할 국문 문자들이 다양한 색깔로 적혀있다. 풍선 아래는 다양한 선전물이 달려있다. 이 글은 이 선전물과 이의 배경에 대해 시사한다.

As the helium-filled plastic shafts rise from the ground, bundles of materials ranging from leaflets eulogizing the downfall of communism and the benefits of a capitalist system to USB drives filled with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exploits and copies of the New Testament hang from their bases. Other materials include socks, radios, and choco-pies (a confectionary popular among South Koreans).

이 헬륨으로 가득찬 물체가 지상으로 오를때, 공산주의의 탄압과 멸망과 자본주의의 혜택을 칭송하는 전단지과 남한의 팝컬처를 담은 USB, 그리고 신약 성경 등의 전달물들도 함께 메달려 날아간다. 양말, 라디오, 초코파이 등 남한의 과자가 전달될 때도 있다.

Most recently, activists have been planning on launching copies of the leaked Hollywood comedy The Interview, which depict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a way that the current regime perceives as “instigating terrorism.” Activists believe that exposing North Koreans to a popular American comedy depicting the assassination of Kim Jong-Un would foster a conscience in their minds about the probability of such an occurrence. Many also believe this would expose North Korean citizens to 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revered leader. However, it will be impossible to accurately gauge the varied reactions that North Koreans may have to seeing such a film. What is clear is that contemporary American comedy is appreciated by only a very specific target audience, and the implications of cultural misunderstanding that may arise could be very serious for the perception of Americans by North Koreans as well.

최근 운동가들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운의 암살 계획을 그리는 할리우드 코메디 영화, <더 인터뷰>의 복사본을 실어 보내기를 계획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미국의 유명 영화를 보며 김정운이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따르는 지도자에 대한 바깥 세상의 부정적인 인식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운동가들의 생각이다. 물론 이 영화를 본 북한인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확실한것은 이런 미국 현대 코메디는 특정한 부류의 시청자들로부터만 인정받는다는 것이며, 영화가 북한의 문화를 부정확하게 보여주며 미국인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2,000–5,000 of these balloons are set adrift each year, of which 2,000–3,000 reach areas with populations within ten kilometres on the North Korean side. As inefficient as this might see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clearly aware of these drops and does its best to repel such subtle encroachments of information into the state. Surprising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interrupting most of these launches. Activists originally publicized the times and dates for the launches,

but increasingly they are finding themselves in trouble with South Korean police, and many have been arrested. Some local citizens also believe that balloon drops could potentially derail talks and lead to more local violence such as the November 2010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All of this has resulted in clashes not directly with the North but with South Korean law enforcement. The North's reaction has been the same all along, that employing natural wind currents to affect political change is a cowardly and unacceptable encroachment on their power. Yet it is clear that certain people in North Korea view the weather as a medium. Varying styles of weather balloons have been found along the South Korean border with the demilitarized zone (DMZ). They have been reported to contain observational tools as well as propagandistic materials. Drones have also been found, but their origins are unknown.

날려보낸 2000-5000개의 풍선 중 2000-3000개 정도가 10km정도 떨어진 북한의 마을에 닿는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러한 선전물 풍선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 선전물들이 몰고오는 외부의 정보가 국내로 들어오는것을 막기위해 힘쓴다. 의심스럽게 볼수도 있겠지만 남한 정부도 선전물 풍선 운동을 막기위해 노력한다. 본래 운동가들은 선전물 풍선을 띄우는 날짜와 시간을 공개했지만, 남한 정책이 문제가 되며 체포 위기까지 맞게되었다. 몇몇 주민들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것이 남북간의 대화 진전을 방해하며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폭력적인 상황을 자처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선전물 풍선은 북한이 아닌 남한 정부와의 갈등을 빚어왔다. 선전물 풍선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항상 같았다. 기류에 정치적 변화를 맡기는 것은 겁쟁이같으며 수용할 수 없는, 자신들의 위치에 대항하는 침략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북한 주민들은 선전물 풍선을 인용할만한 대화 방법으로 여긴것은 확실하다. 여러 종류의 풍선들이 DMZ의 남한 국경선에서 발견됐다. 이 풍선들은 선전물과 관찰기구를 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무인 정찰기도 발견이 됐지만 이의 정확한 근원지나 배후자는 찾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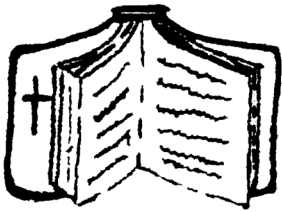
Activists from around the world claim these balloon “drops” are a method of getting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into North Korea. What unites these different activists is their insistence on civil disobedience. Several organizations openly discuss and defend their actions as an active way to penetrating the North Korean “psyche.”

세계 여러 나라의 운동가들은 선전물 풍선을 보내는 것이 외부의 정보를 북한 안으로 보내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 방법을 통해 시민 불복종을 일으켜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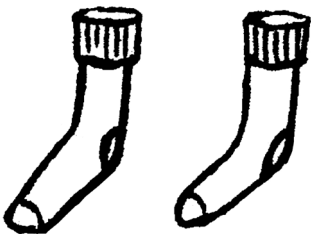
W
e
a
t
h
e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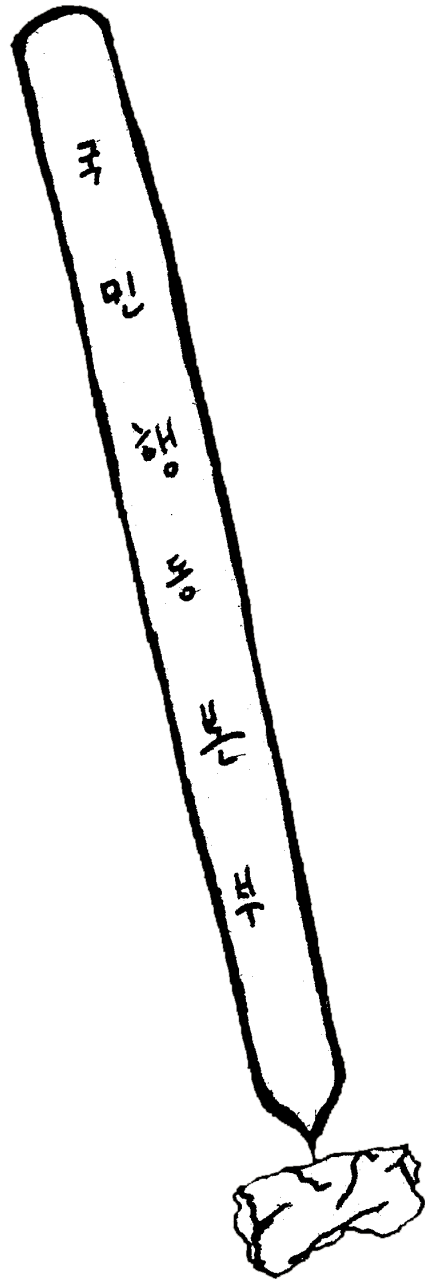
Leaf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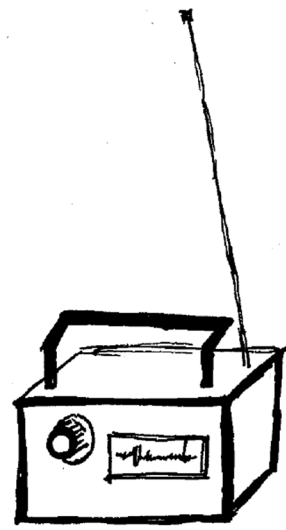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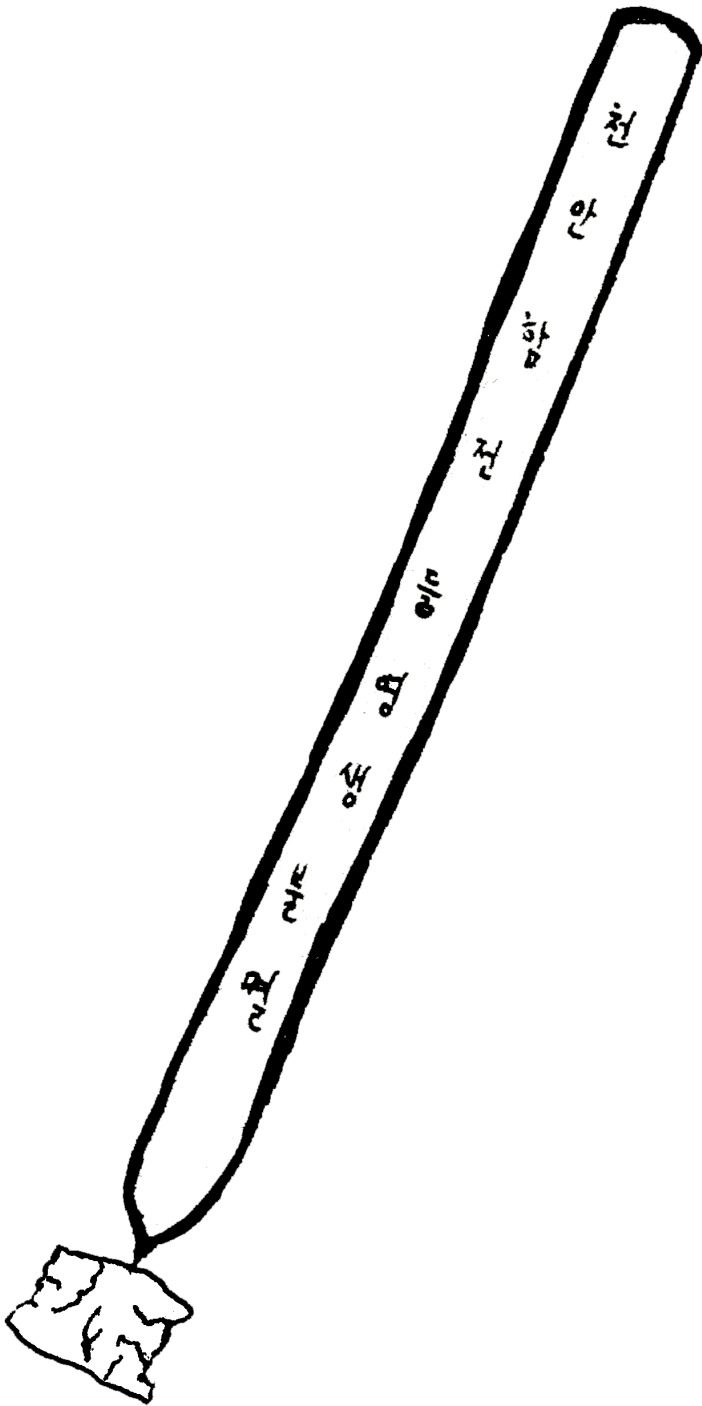
Bible



S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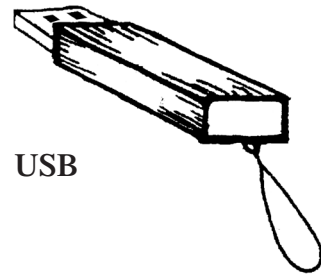
S
c
a
p
e
g
o
a
t
8



Radio



Chocopie



USB

정권 체제의 지배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역설적이게도 여러 조직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북한의 정신을 꿰뚫어볼 수 있는 행위로 설명하고 옹호한다. 이 행위의 영향을 바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통제 방법으로 우리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땅의 통제 및 규제를 어지럽히는 행동에 대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겠다.

All of these efforts—whether one sees them as politics, diplomacy, meteorology, or indoctrination—are exercises of control reliant on the whim of the skies.

W
e
a
t
h
e
r

이 모든 노력이 - 정치적, 외교적, 기상학적, 주입적 방법을 통한 무엇에 대한 통제가 - 날씨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또는 남한에서 풍선이 띄워질때 이들의 운명은 하늘에 달린다.

S
c
a
p
e
g
o
a
t

8